


환경부

보 도 자 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3. 02. 20.(월) 14:00	배포 일시	2023. 02. 20.(월)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장 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찬웅 (044-201-6762)

효율적 환경피해 구제, 전문가에게 묻는다
- 환경부, 국민의 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 개최 -

- ☐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2월 20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(서울 서초구 소재)에서 ‘환경권 보장 강화를 위한 정책 간담회’를 개최한다.
- ☐
환경부는 지난해부터 한 번의 신청으로도 환경피해 해결을 위해 그간 분리되어있던 건강피해조사, 분쟁조정, 환경피해구제 제도를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*을 추진해왔다.

* △환경분쟁 조정법, △환경보건법, △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, △석면피해구제법, △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, △석면안전관리법 (이상 임의자의원실 대표 발의, '22.12.27.)
- ☐
이번 간담회는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의 장(場)을 마련하는 것으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박용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보건 및 환경법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한다.
- ☐
환경부의 주제발표로 시작된 간담회는 건강피해조사,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의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와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자유 토의를 진행한다.

- ☐
발표 주제는 ‘해결창구 일원화’ 제도 도입 이후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제도 및 조직 운영 방향에 대한 것으로, 환경피해를 입은 국민의 관점에서 최적의 해결방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업무 처리 절차 전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.
- ☐
환경부는 이번 정책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리를 지속해서 마련할 예정이며, 하반기에는 ‘환경피해 구제 통합창구’ 추진 관련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.
- ☐
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“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건강피해에 대해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”라면서,

☐
“각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여, 이르면 2024년까지 환경피해 구제를 위한 통합 창구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 라고 말했다.

붙임 정책 간담회 계획. 끝

담당 부서 <총괄>	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	책임자	과 장 김지영 (044-201-67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찬웅 (044-201-6762)
<공동>	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	책임자	사무국장 신지형 (044-201-7940)
		담당자	사무관 장정호 (044-201-7955)
<공동>	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	책임자	과 장 서민아 (044-201-6810)
		담당자	사무관 송채영 (044-201-6819)

- 주요 내용

○ (일시/장소) '23.2.20(월), 15시 30분 ~ 16시 30분 / 한강홍수통제소

○ (참석) 환경부 장관(주재),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, 환경보건국, 관련 학계 전문가(환경법학회장, 환경보건학회장) 등

□ 행사 진행 순서

시간	내용	비고
15:30~15:35	■ 참석자 소개 (5분)	진행: 환경보건정책과장
15:35~15:40	■ 인사 말씀 (5분)	환경부 장관
15:40~15:55	■ 정책 발표 (15분) -환경피해구제 원스톱서비스 제도·조직 운영 방향	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
15:55~16:25	■ 자유 토의 (30분)	
16:25~16:30	■ 마무리 말씀 (5분)	환경부 장관

□ 참석자 명단

No.		기관	성 명	직급/직위
정부	1	환경부	한화진	장관
	2		박용규	중앙환경분쟁조정위 위원장
	3		신지형	중앙환경분쟁조정위 사무국장
	4		김지영	환경보건정책과장
	5		서민아	환경피해구제과장
학계	6	환경법학회	소병천	학회장/교수
	7	환경보건학회	양원호	학회장/교수
	8	단국대학교	성시경	교수
	9	강원대학교	박태현	교수
	10	부경대학교	박중원	교수